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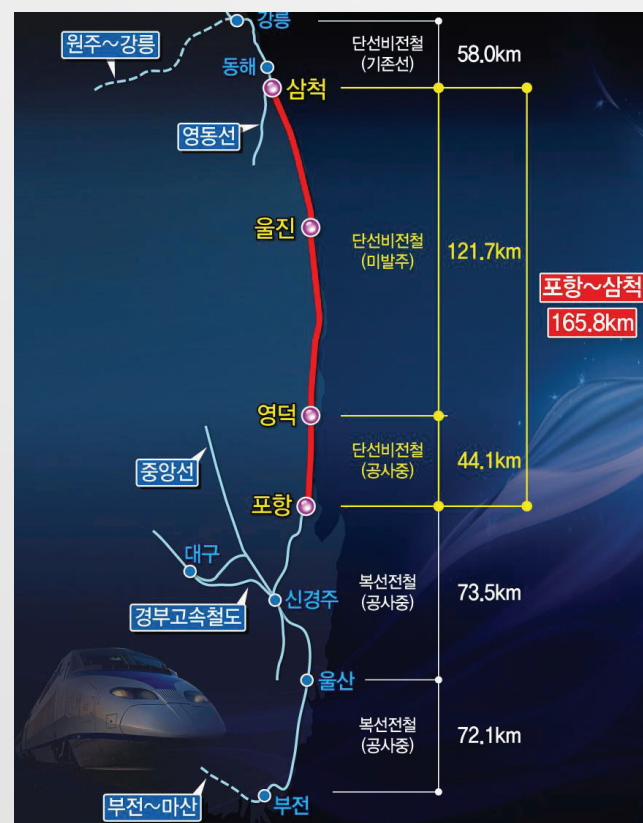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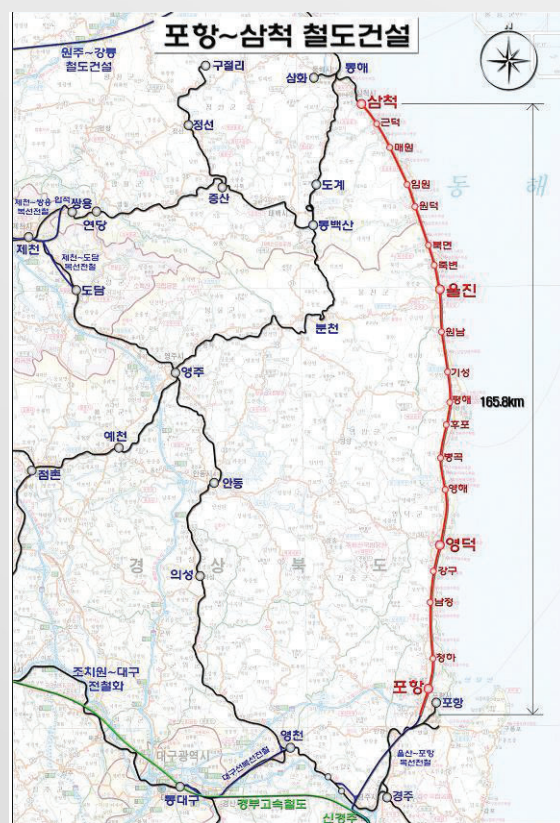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건설 설계 착수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동해선 포항~삼척(165.8km) 철도건설사업 중 2단계 구간인 영덕~삼척(96.9km) 설계를 8월 중 착수한다.

동해선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 동해안을 따라 부산에서 원산을 잇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1935년 12월 부산진~포항간(147.8km) 동해남부선, 1937년 12월 원산~양양간(192.6km)의 동해북부선이 개통되었으나, 포항~삼척간(179.7km)은 1940년 4월 착공 후 1945년 8월 광복을 맞아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설계를 거쳐 2018년 포항~삼척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진에서 삼척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이 신설되어, 현재 시외버스로 3시간 10분 걸리는 포항~삼척간의 이동시간이 철도이용 시 1시간 35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 관계자는 "동해안의 철도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이 증대됨은 물론,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녹색철도대학원』 25명 석사학위 취득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 인재개발처가 글로벌 철도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우송대학교와 공동으로 설립한 사내 전문대학원인 『녹색철도대학원』 제1기생 25명(공단 15명, 협력사 10명) 전원이 1년 6개월의 정규 수업을 모두 마치고 최종관문인 논문을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이번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 25명은 공단이 글로벌 핵심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임직원의 약 50% 수준인 671명(석사 490명, 박사 30명, 기술사 151명)을 핵심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목표 아래 배출한 첫 결실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녹색철도대학원』 1기생들의 논문은 '내륙 컨테이너기지화 및 인입철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단면적 최적화 방안 연구' 등 철도건설 현장의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사업비 절감 방안 등 실증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김광재 이사장은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보여준 직원들의 열민 학구열과 노력은 우리 공단의 미래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철도대학원』 1기생들의 학위수여식은 오는 8월 운영파트너인 우송대학교와 함께 가질 예정이다.

강원본부, 조직문화 활성화 워크숍 및 상반기 성과보고회 개최!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준)는 업무개선과 제 도출과 직원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문화 활성화 워크숍 및 상반기 성과 보고회를 6월 25일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차장 이하 직원들이 조직 문화 및 의사소통, 업무개선 등 자율 개선과제 9개를 발표한 뒤 뜨거운 토론을 가졌으며, 업무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16억 여원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성과 보고회에서는 부장들이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더불어 부진사항에 대한 반성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본부는 하반기에도 업무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직문화와 업무성장을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예정이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게시판

주요뉴스 ('13.6.29~'13.7.5)

- 철도시설공단, 국정기조 반영 조직개편 단행 (충청투데이09)
- 10만원 받아도 정직... 임금삭감 공기업 금품 비리 뿌리 뽑는다 (세계일보02)
- "금품비리 댄 퇴출" 칼 댄 공기업 (서울경제06)
- "차정부 1기 경제팀, 정책리더십 낙제점" (동아일보01)
- 포항~삼척 철도 68년만에 건설 재개 (서울경제31)
- 동해선 영덕~삼척 2018년 준공 (한겨레12B)
-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 무산 (강원도민01)
- 국토부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 제안한 곳 우선 지정" (동아일보B04)
- 박근혜 정부 '124조 지방공약' 다 지키다 (한국경제09)
- 공기업, 성장동력 해치는 블랙홀 (한국경제38)
- 전남·북 잇는 호남고속철도 노령터널 관통... 총연장 4300m (국민일보10B, 광주일보01, 무등일보02)
- 철도시설공 을 상반기 예산 203억 절감 (파이낸셜27)
- 부산~목포 고속철 건설 한목소리 (광남일보08)
- KTX울산역 이용 연인원 1천만명 돌파 (경상일보06)
- 복선철도 강릉시내 지하화 총력 (강원도민14)
- 소기관 상시 구조조정 비효율 '철반동' 갱다 (동아일보01)
- '지역인 숙원 호남 고속철 내년말 반드시 개통하겠다' (광남일보03, 광주일보09)
- 114년 역사 철도소 최초 여성간부 탄생 (대전일보20, 중도일보22)
- KTX울산역 증축 재검토 (경상일보01)
- 반나절 생활권 꿈 호남선...최대 난구간 '노령터널' 뚫렸다 (충청투데이09, 전북일보12, 전남일보01, 광주일보02, 광남일보01)
- 코레일 태클에 철도발전방안 '헛바퀴' (서울신문11)
- "공무원이 職務 관련자에 돈 받으면 代價性 없어도 형사처벌" (조선일보01)
- 사업비 500억 넘는 지역공약 모두 재검토하거나 연기될 듯 (동아일보06, 파이낸셜06, 서울신문17)
- '건설의 乙' 하도급업체들 휘청... 3665곳 문닫아 (조선일보B05)
- 호남고속철 노령터널 개통시 (동아일보14E)
-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등 본격 추진 (파이낸셜22)
- 철도-도로 공약 26개중 14개 '경제성 없음' (동아일보02)
- 'KTX울산역 증축 불필요' 용역 결과가 市 반발 (국민일보10A)
- 제2 경부고속도 民資로 건설한다 (조선일보01)
- 新안산선·新분당선도 民資로 (조선일보06)
- 행복주택 '첨천산중' (한국경제25)
- 공공기관 부채도 합산 나랏빚 1500조로 늘 듯 (중앙일보B04)

경부선 횡단 영동지하차도 건설공사 착수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일원에 통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영동지하차도 건설공사에 착수한다.

본 공사는 영동군 도시계획에 따라 경부선 영동역을 가로질러 연장 165m, 폭 15m의 2차선 도로와 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영동군에서 사업비 200억원을 부담하고, 공단에서 시공한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해 공사가 마무리 되는 2015년 12월이면 지하보차도의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철도변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하차도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편익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렴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 호남본부, 청렴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용)는 6월 26일 순천역 광장에서 철도공사 전남본부, 순천이마트와 합동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본부 등 3개 기관 총 80여 명이 이날 순천역 광장 및 대합실에서 교통안전 및 청렴실천 의지가 담긴 어깨띠 착용과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전했다.



KR봉사단, 1사1촌 결연마을 봉사 구슬 땀

- 논산 황산별 참살이 마을 찾아 감자수확 등 농촌봉사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에 따르면 KR봉사단은 6월 26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황산별 참살이 마을을 찾아 농촌봉사를 통한 도농(都農) 교류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된 KR봉사단은 감자밭(1400㎡)에서 직접 수확한 감자를 선별하여 포장하고, 고추밭(2400㎡)의 고추를 따주기 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총무부는 5월에도 '사랑의 김장나눔 재료부터 김치까지'를 슬로건으로 고추 모종심기, 고추지지대 세우기 등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2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직접 재배한 친환경 재료로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KR봉사단은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가족봉사단 농촌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여 1사1촌 마을과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원본부, 자매마을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강원본부(이동준 본부장) KR봉사단은 6월 25일 자매마을 고산리에서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자매마을의 독거 어르신들 일손을 돕기 위해 시행된 이번 행사는 무더위 속에서 논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힘든 활동이었다.

봉사단은 불볕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1500명 논매기와 2000명 다래농장 잡초제거를 완료했다.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주신 김학수 마을이장은 "농번기 일손이 모자란 자매마을을 위해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본부는 2008년 고산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봄가을 농번기 일손돕기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철도건설현장 견학, KTX 승차체험 등의 철도사랑캠프를 시행하는 등 1사1촌 자매결연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